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8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미국내 테러의 30%는 백인 극단주의자 소행

- 8.4 NYT는 지난 '11~'17년 간 '글로벌 테러 데이터베이스'와 유럽·북미·호주에서 발생한 약 350건의 테러를 분석한 결과, △전체 테러 중 약 8%가 백인 극단주의에 의한 것이고, △미국은 약 30%가 이에 해당하며, △온라인·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

○ 美, 2011년 이후 방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

- 8.5 美 정부는 2017. 11월 北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후 후속 조치로 '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(ESTA*)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'고 우리 외교부에 통보

*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(38개)의 국민에게 관광·상용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

중 동

○ 알카에다 후계자 「함자 빈라덴」 사망

- 7.31 NYT는 美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, 「오사마 빈라덴」 사망 이후에 알카에다의 재건을 주도하던 아들 「함자 빈라덴」이 미군의 작전에 의해 최근 2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

* 무장단체간의 교신내용을 근거로 「함자」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

○ 이란, '호르무즈 호위연합'에 적극 대응 경고

- 8.5 이란 현지언론은 「자리프」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“이란은 그간 페르시아만의 공세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, 더는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”고 경고성 언급내용을 보도

○ 시리아 반군, 정부軍의 ‘조건부 휴전 제안’ 거부

- 8.4 현지언론은 반군 中 가장 강한 세력인 ‘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(HTS)*’의 수장 「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」가 정부軍이 제안(8.1)한 이дли프주 일대 ‘긴장완화지역(비무장지역)’에서의 철수를 조건으로 한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보도

*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계승, 시리아 북서부의 이дли프주 대부분을 장악

유 럽

○ 英 대테러 책임자, ‘노딜 브렉시트’시 안보위협 경고

- 8.7 「닐 바수」 런던 경찰청 대테러대책본부장은 노딜 브렉시트(No deal Brexit)를 시행할 경우 유럽과의 정보공유 차질로 즉각적인 보안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경고

* 생겐정보시스템 II 데이터베이스, 승객예약기록(passenger name records), 유럽체포영장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및 연방정부 직할 귀속 법안 통과

- 8.7 CNN은 인도 정부가 잠무-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헌법 제370조*를 폐지(8.5)하고, 연방정부 직할구역으로 귀속시켜 중앙 정부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(8.6)시켰다고 보도

* 1951년 영유권 분쟁지이고,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외교·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조항 마련

○ 태국, 「아세안 외교장관회의」 이후에도 연쇄 폭탄사건 발생

- 8.7 현지언론은 7.31~8.3 방콕에서 열린 「아세안 외교장관회의」 기간 중 방콕 도심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한데 이어, 행사 종결 이후인 지난 4일에도 남부지역에서 3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도

* 당국은 방콕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세력의 소행인지 수사 中

라마단 종료 직전 이라크 연쇄테러

- 라마단 종료 前日인 '13.8.7 이라크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와 총격 사건이 발생, 47명이 사망하고 100여명 이상이 부상
 - 수도 바그다드 일대와 모술·디얄라 등 이라크 전역에서 테러가 발생하였으며, 주로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중 낮 금식(아랍어: 싸움)을 마치고 일몰 후 식사(아랍어: 이프타르)를 위해 운집한 시장과 번화가에 집중공격
- 「알-말리키」 이라크 총리는 “우리의 자식들을 살인마들과 그 지원 세력들에게 방치하지 않겠다”며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을 발표
 - * '13년 이라크內 라마단 기간(7.9~8.7)동안 각종 테러로 인해 최소 675명이상 사망
- 同 테러는 수니파와 시아파 등 종파를 가리지 않고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며, 배후를 자처했던 단체는 없으나 이라크內에서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중이던 ISIS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추정

테러 상식

< 이슬람 聖月 ‘라마단’ >

- (라마단이란) 이슬람 창시자 「무함마드」가 천사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것을 기리는 신성한 달로, 이 기간 무슬림은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5번 기도
- (기간) 초승달을 기점으로 시작되며,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어 태양력보다 11~12일이 적기 때문에 매년 빨라지는데 전문가단이 초승달을 관측하여 라다만 시작일자를 공표
- (테러리즘 관련성) ISIS·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라마단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을 악용해 테러를 순교로 포장하고 라마단 기간중 지하드(聖戰)*를 실행하면 천국행이 약속된다고 테러를 자행할 것을 선전·선동

* 이슬람교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벌이는 이교도와의 투쟁